

절세위인을 모시여 조선은 밝고 미래가 창창하다

5

2022

2023

10

1

3

8

50

500



김정은

8

6

본사기자 리경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해축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의 국위와 영광은 더 높이 떨쳐질 것이다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112(2023)

김정은

5.28

20

1

1

김정은

2022

김정은
2022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2023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1

김정은

본사기자

본사기자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주제36(1947)년 3월 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기로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던 재일동포 1만여명이 3월 9일부터 귀국한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 동포들을 잘 맞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동포들은 나라라는 실음을 안고 이국땅에서 온갖 민족적질서와 전대를 받으며 고역살이를 해온 우리와 같은 혈육들입니다.》

이 감행하였다. 일반동포들의 이러한 귀국 방해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희생되었으며 항구들에 머물러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 보지도 못한채 눈을 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서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생각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었으면 그리도 절절하게 말씀하시라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하면서 분투해야 할 동지로 믿고 따스히 대해주어야 하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재일동포들이 돌아오면 수송대책을 철저히 세워 아무런 지장도 없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시며 해방 전까지는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생활을 안정하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1)

다. 때는 겨례의 머리위에 일제의 채찍질이 날로 가혹하게 들쭉거리고 있었고 인원과 분노가 6.10만세시위항성으로 터져오르기 직전인 1926년 5월이었다.

되고 사대의 《오물》들이 범람하는 곳이었다. 이승만의 사대매국정치 아래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대중, 교사리같은 손으로 비탄하는 어린것들,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선생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홍동근 목사

남조선과 해외의 명망층은 애국인사들가운데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범민련 아메리카주본부 교민이었던 홍동근 선생도 있었다.

1945년 8월 조국해방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일하던 선생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폭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장모가 될 녀인이 달려와 몸을 피하라 고 알려주었다.

이역의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이 자기에 대한 탄압과 차별행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뜻없이 지켜가고 있다.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주최하에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연속하여 개최되어온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될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민족교육만 허물면 총련을 말할수 있다는 유훈을 타산뒀어 일반동포들은 조선학교들을 압박하는 각종 부당한 차별행위를 일삼고있다.

500 번째 《화요행동》은 500번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날 진행된 집회와 시위행진에는 총련 오사까본부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화요행동》은 불려온다. 지난해 12월 13일은 그 500번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날 진행된 집회와 시위행진에는 총련 오사까본부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500 번째 《화요행동》에 참가한 동포들

지배와 굴종, 범죄의 70년력사는 감출수 없다

자유와 권리를 짓밟은 각종 《군정법령》의 조작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식민지과소통체제수립을 위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미국에 의해 1946년 5월 4일에 조작공포된 《군정법령》 72호가 그 악법들중의 하나이다.

《정당등록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와 그 성원들을 가혹하게 탄압처형하는데 초점을 둔 악법이었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파괴된 원산시의 일부



파괴된 국립예술극장



폭격으로 폐허가 된 평양시의 일부



《군정법령》 88호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 (1946년 5월)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정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령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락폭탄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